

98년도 오리업 생산량 변화

지난해 국내 오리업은 오리고기 생산측면에서는 후퇴한 반면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소득이 크게 높아진해로 기억될 것 같다.

또한 육용오리 가격의 폭등으로 사육열기는 고조된 반면 새끼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오리를 사육하고 싶어도 새끼를 구하지못해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는등 97년도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오리업의 이같은 현상은 크게 두가지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IMF 발생에 따른 사료값 폭등으로 부화장들이 새끼생산량을 크게 줄여 육용오리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고 둘째, 홍콩에서 발생된 독감으로 인해 97년도 12월 30일 중국산 가금육 수입이 중단되어 오리고기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호황으로 기록될 98년도 오리업계의 변화를 분석하므로서 오리업의 정확한 이해와 향후 오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오리사육량 변화

1) 산란오리 사육량

산란오리 사육량은 당해연도 산란사료 생산량을 기초로 사육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본회가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지난해 산란사료 생산량은 총 1만4천52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돼 이를 기초로한 산란오리 총사육량은 1백55만9천수로 월평균 약 13만수의 종오리가 사육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산란오리 사육량은 97년도에 비해 23% 줄어든 사육량이다.

2) 종란생산량

지난해 산란오리 사육량을 기초로한 종란생산량은 산란율 62.5%로 계산시 2천9백27만개 내외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생산량 역시 전년대비 약 23%내외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3) 새끼오리 생산량

지난해 새끼오리 생산량은 2월부터 5월까지의 양상을 보였고 6월부터 9월까지의 양상을 보였고 9월이후는 다시 줄어들어 월평균 약 1백2십만수 내외가 생산되어 총 1천8백43만수 내외의 새끼오리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육용오리 생산량

지난해 국내 육용오리 출하수수는 1천6백30만수 내외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월평균 1백36만수 내외의 육용오리가 출하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육용오리 출하수수는 97년도 생산량 2천3백만수에 비해 약32%가 감소한 량이다. 이와같이 지난해 육용오리 출하수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부화장들의 새끼오리 생산량 감소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1> 98년도 월별 육용오리,새끼오리생산량
(단위:천수)

월별	육용오리 생산량	새끼오리 생산량
1	1,604	1,502
2	1,222	1,170
3	1,322	1,306
4	1,053	1,942
5	1,175	1,851
6	1,748	1,877
7	1,666	1,633
8	1,690	1,211
9	1,469	1,135
10	1,114	1,369
11	1,004	1,630
12	1,232	1,805
합 계	16,299	18,431

2. 육용오리,새끼오리 가격

1) 육용오리 가격

지난해 육용오리가격은 사육량감소와 수입오리고기의 수입량 감소로 오리고기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했다.

육용오리 생체Kg당 평균가격은 1천9백24원으로 전년대비 67% 인상된 가격에 거래됐다. 이를 지난해 육용오리 평균 출하체중인 2.8Kg으로 보정시 수당 가격은 5천3백87원에 거래돼 전년도 수당가격인 3천6백83원에 비해 46% 인상된 가격에 거래됐다.

월별 생체Kg당 가격변화는 1월과 2월에 1천6백원대에 거래되던 가격이 3월에는 2천2백원,4월에는 2천6백원까지 폭등하였으며 5월에는 2천4백원,6월에는 2천1백원선으로 떨어져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여 연말에는 1천5백원선까지 하락했다.

2) 새끼오리 가격

새끼오리 사육량 감소로 육용오리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새끼오리 가격역시 폭등하여 년평균 수당 새끼오리 가격은 1천70원에 거래되어 전년가격 6백66원에 비해 60%가 인상된 가격에 형성됐다.

월별 새끼오리 가격은 1월과 2월에 8백75원선에 거래되던 새끼오리 가격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려 7월과 8월에 1천2백50원까지 치솟은 이후 완만한 하락으로 연말에는 9백75원선을 유지했다.

3. 오리고기 소비량

지난해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배합사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육용오리 사육량 1천6백30만수, 출하체중 2.8Kg 기준시 지육생산량은 2만9천6백64톤, 정육생산량은 1만8천2백54톤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종오리 사육농가들의 경우 배합사료가 아닌 부산물을 이용하고 있어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나 전체오리사육량의 약15%정도를 계산하여 이를 합산할 때 지난해 오리고기 생산량은 정육기준으로 약 2만톤, 지육기준으로는 약 3만2천톤 내외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오리고기 수입량은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이 증치되면서 크게 줄어 지난해 1천9백59톤이 수입되는데 그쳤다.

따라서 지난해 국내오리고기 전체 소비량은 정육기준으로 국내생산 2만톤, 수입량 1천9백59톤을 포함하여 총2만2천톤 내외가 소비된 것으로 추산되어 국민1인당 약 0.45Kg의 오리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오리고기 소비량은 97년도의 국민1인당 소비량 0.9Kg에 비해 약 45%가 감소한 량이다.

<연도별 오리고기 소비량 변화>

연 도	국 내 생 산 (톤)	수 입 량 (톤)	합 계 (톤)	1인당 소비량 (Kg)
94	12,219	3,321	15,540	0.35
95	17,818	4,915	22,733	0.5
96	23,652	8,000	31,652	0.7
97	29,559	7,216	36,775	0.88
98	20,000	1,959	21,959	0.45

<연도별 오리고기 수입량 변화>

연 도	수 입 량 (톤)	외 화 액 (1천달러)	증 감 (%)
91	1,288		
92	3,619		280
93	2,692		74.3
94	3,321		123
95	4,915		147.9
96	8,408	19,824	171
97	7,216	14,000	85.8
98	1,959	5,010	27

<년도별 오리도축수수>

연 도	도 축 수 수 (천수)	증 감 (%)
93	6,930	
94	12,200	176
95	15,695	128
96	23,360	149
97	23,838	102
98	16,299	68

4.오리업 전망

지난해 국내 오리업은 수입개방이후 처음으로 오리고기 소비량이 45% 감소하였고 오리사육량 역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던 것이 전년대비 32% 격감하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이같은 기현상에도 불구하고 오리업계는 지난한해 사육량 감소와 오리고기 수입량 격감으로 예년에 보지드문 호황을 구가하여 96년과 97년도의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사육열기 또한 크게 고조되고 있다.

연도별 오리도축수수에서 알수 있듯이 국내 오리사육량은 95년도 수준으로 후퇴하였고 소비량역시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반하여 지난해 호황은 오리사육열기를 크게 고조시켜 올해는 오리사육수수 및 사육농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98년 1월부터 수입이 중지됐던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이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입오리고기와 경쟁을 위해서는 사육농가 측면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부화장은 품질좋은 새끼오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신선오리고기 유통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가공품과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소비홍보또한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자구노력이 수반되면 오리업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중시한 기능성 육류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